"서구을 잡아라" 여야 지도부 광주 총력전

그는 이어 "이번 선거는 현재 우리 당의

변화, 혁신,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보이도

록 노력하고 있고, 당 지지도가 오르고 있

는 만큼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잇는 기로가 되는 중요

한 선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성

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겠지

만, 이번 재보선 공천에서 보였듯 우리당

은 이제 정정당한 공천과 선거로 정도와

30일에는 광주를 다시 방문해 현장최고

위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도 여는

등 경제정당·정책정당의 면모로 승부를

원칙을 통해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 26일 광주서 김무성 대표 등 참석 당원 필승대회 새정치, 문재인 대표 등 잇따라 광주 방문 '안방사수' 올인

여야가 $4\cdot 29$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 총력전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보궐선거 준비체 제를 가동한 후 첫 주말을 맞아 문재인 대 표 등 당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한데 이 어 오는 30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를 진행키로 하는 등 사실상 '안방 사수'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재누리당도 26일 광주에서 열리는 '4' 29 재보선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 김무성 대표와 당 지도부가 참석해 서구 을 보궐 선거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광주행'은 텃밭 인 광주에서 무소속 천정배 후보의 기세를 꺾고 초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당지도부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빌딩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통과 보고 대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했다. 지역 최대현안과 관련된 보고대회도 중요했지만 재보선을 겨냥한 행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제1야당으로서 원내협상을 통해 광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지원을 관철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도, 사실상 원내에서 영향력이 없는 무소속 천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의도로 읽힌다.

지도부가 이처럼 광주 서구을 보선에 집중하는 것은 이곳에서의 패배가 다른 지역보다 거센 후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서구을 지역은 이번 4곳의 재보선 지역 중 관심지역이 됐으며, 광주서을의 판세가 전체 판세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전체적인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있다"고 분석했다.

걸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광주지역에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 등의 내용을 담아 '광주형 일자리 창출' 맞춤형 공약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천정배 후보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과 수도권 혈전을 내팽 개쳐둔 채 광주정치의 기득권 독점을 유지 하기 위해 세 과시에 나선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안타깝다"면서 "새누리당 심판 보다 광주만은 자신들의 볼모로 계속 잡아 두려는 지역독점 기득권정치의 속내를 드 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6일 예정된 새누리당 광주시당의 '당원 필승 결의대회'에 김무성 대표와당 지도부도 참석해 선거에 나선 정승 후보 지원에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권 심장부인 광주에서의 야권 분열이 이뤄진 만큼 집중적으로 공략하

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일정상 큰 무리가 없을 경우 광주를 방문해 이번 보궐선거의 중요 성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정 후보를 격 려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최고위원도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정승 후보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서구을 보선에 총력전을 펼치는 것은 새정치연합과 무소속 천정배 후보 간의 '난타전'이 진행되고 있는 틈을 타'인물론'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 후보 측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서구을 선거구에서 40%에가까운 득표율을 올린 이정현 최고위원의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래하는 심상정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차 정기 당대회에서 춤을 추며 참석자들에 게 노래를 권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선 현장

정승 "여당 1석만 있어도 광주발전 효과는 100배"

정승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2일 "광주에 1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면 의석은 한자리이지만 광주발전을 위한 효과는 백배 이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8명의 국회의원 중 1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있다면 여권의 집중적인 지원과 여야간 경쟁구도를 통해 광주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역주의로 인해 광주 경 제 발전 정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일당 독주 체제에서 여



야가 경쟁할 수 있는 선순환 정치권 구도 로 바꾸는 것이 광주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단초"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이어 "전남에서는 이

정현 의원이,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지역주의를 깨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광주 정치권도 이제는 당파나 계파주의 보다는 광주 발전을 최고가치로 해야 한다는 광주시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메기 효과'로 무기력 호남 정치에 활력을"

천정배 무소속 예비후보가 '메기 효과'를 내세우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고 나섰다.

천 예비후보는 2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독점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다"라면서 "새정치연합에 옐로우카드를 보내고, 전체 야권을 변화시키라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메기 효과'를 언급했다.

'메기 효과'란 어항 속에서 미꾸라지들이 활력을 잃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



민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 대안세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서 천정배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가광주 정치에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보궐선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일 "물의 공공성에 국가가 책임 다해야"

전 통합진보당 출신 조남일 무소속 예 비후보는 '세계 물의 날'(20일)을 계기로 정부에 물 공공성과 물 인권 보장에 국 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22일 논평을 통해 "정 부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상수도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은 뒷전인채 오히 려 수자원 공사로의 통합 위탁을 유도하 며 위탁지역에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토



교통부와 수자원공 사 역시 국민들의 반 대에도, 강행했던 대 국민 사기극, 즉 4대 강 사업으로 인해 6 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쌓이

자 소위 '상수도 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각 지자체에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영록, 농어업 비과세 감면대상 5년 연장 법안 발의

2014미스코리아 "및 김사연" 양이 전속모델로 활동하여 모든 당선자들이 (주)들때아의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지난 20일 올해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대상 24건에 대해 향후 5년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세특례제안법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과세특 례와 농어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 법인·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합원·출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농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다수의 농어 업부문 과세특례를 2020년까지 연장하도 록하고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 법 개정안은 농협·수 협·산림조합 등의 고

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및 농어업법인이 영농·영어·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 세·재산세 감면 등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권은희, 무등산 군부대 기름유출 사고 경위 실태 조사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지난 20일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 기름유출〈관련기사 6면〉 현장을 방문, 사고 발생 경위와 후속조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는 지난 15일 등산객의 제보로 기름유출을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172 ℓ의 기름이 유출되는 동안 상황을 점검하지 못하는 등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군부대로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권 의원은 또 사고 발생 시 즉각 광주시에 상황을 전달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하나, 닷새 동안 쉬쉬하며 방제작업을 실시



하는 등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기름이 배수로를 타고 300m 떨어진 계곡까지 유출 되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이번 사고 뿐만 아니라 방공포대가 무등 산에 주둔하는 동안 주상절리가 훼손되는 등 자연환경 훼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막바지 접점 모색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 타협기구 활동을 예정대로 오는 28일 마치 고 그동안 제시된 개혁안을 국회 공무원연 금 개혁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남은 일주일 동안 막바지 접점 모색을 시도한다. 하지 만, 여야와 공무원노조 등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접근법부터 달리하고 있어 단 일안 도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절충점 찾기에 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새누리당이 검토하는 대안 중 하나는 고 려대 김태일 교수의 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교수의 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급여·부담 규모를 설계하고, 퇴직수당은 민간 퇴직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방식을 추진하되 '저축계정'(개인연금저축)을 혼합하는 것이다. 이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무원이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일정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약화하는 노후보장 수준을 보완하는 장치를 덧붙인 것이다.

야당과 노조는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 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내세운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사장 김연호 010-8607-3228



http://always.kwu.ac.kr

http://www.gnue.ac.kr/



전화 문의하시면 지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